

최우수로니상

팩트연구원

▶ 김민준, 변하원, 김유준, 박지상
(하귀일초등학교)

리포트

전국 최대 유기견 보유 지역 제주,
제주인이 무책임한 것인가?

포스터

“동물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길,
당신은 어떤 길로 가지겠습니까?”



팀 소개 인사 및 각오

우리 팀의 이름은 '팩트연구원'입니다. 요즘같이 팩트가 중요한 시대에 트집 잡히지 않도록 연구를 하고, 구석구석 파헤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팩트연구원은 6학년 두 명, 4학년 두 명, 총 4명으로 구성된 팀이며, 푸른 바다와 한라산이 보이는 자연의 섬에서 맘껏 뛰노는 제주의 아이들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팩트체크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배웁니다.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정보를 무방비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 추리하는 팩트체커가 되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각오를 적어봤습니다. **민준** '디지털 세상, 똑똑한 시민이 되기 위해'라는 슬로건으로 디지털미디어리터러 시를 배웠습니다. 허위조작정보가 넘쳐나는 위험한 세상 속에서 허위조작정보에 속지 않고 끊임없이 사실을 찾아내어 팩트체크를 하는 열정 가득한 팩트체커가 되고 싶습니다. **하원** 요즘은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잘 판단해서 그 이야기들을 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소문을 신중하게 대하고 상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의 안전과 평화가 목적인 팩트체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청소년체커톤" 대회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즐기면서 참여하고 1등 아니면 안된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유준** 나는 청소년 체커톤에 아주 열심히 참여할 것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정보, 가짜뉴스에 대해 사람들이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번 대회를 잘 해내서 허위정보를 잘 가려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팩트체크 리포트

전국 최대 유기견 보유 지역 제주, 제주인이 무책임한 것인가? - 부제: 세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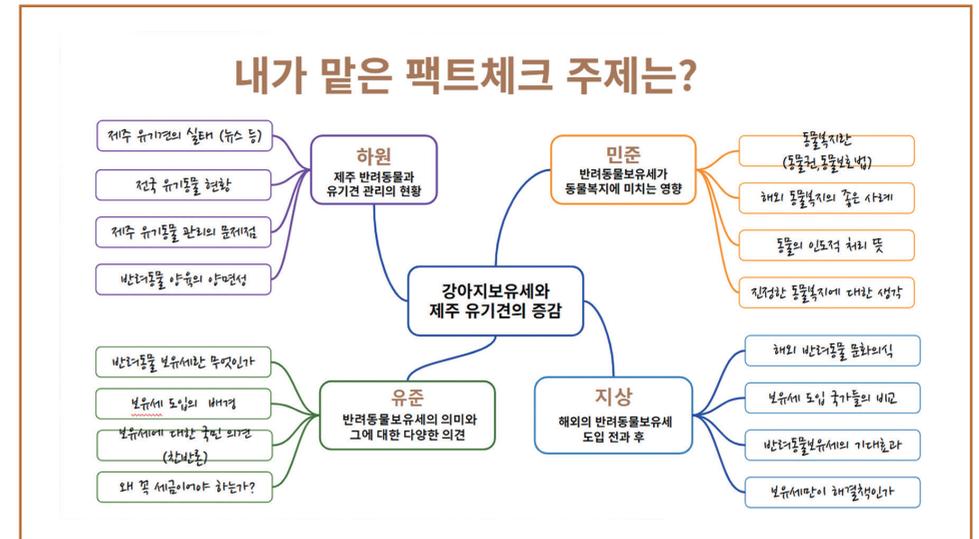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초등학생이라면 엄마아빠에게 강아지 사달라고 한 번쯤 졸라보지 않은 아이가 있을까? 유준이는 얼마 전에도 엄마에게 강아지 사달라고 조르다 이번 체커톤을 통해 잘 알고 데려오기로 했다고 하고, 또 언젠가 학급의 반려동물 양육조사에서 우리 반 두 명 중 한 명은 강아지나 고양이, 그 외 동물들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던 하원이는 평소 강아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마라도에 유기묘들이 많아 입양 보내기 캠페인 포스터를 보았던 기억이 나서 더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 제주에선 반려견도 많지만,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기견도 정말 많다, 그래서인지 평소에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체커톤 대회를 결심하고 경제 뉴스들을 보다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기사를 보았고 반려동물 세금을 도입하게 되면 유기견을 줄일 수 있다는 글을 보았다. 정말 세금으로 제주의 유기견이 전국 최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세금으로 경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반려동물 세금의 도입에 찬반 의견이 강하다. 왜일까? 세금은 공공의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만드는데 꼭 필요한 돈이라고 배웠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기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우리가 사는 제주의 경제와도 관련이 있을지 알아봐야겠다.

☀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아무리 친숙한 반려동물의 이야기지만, 유기견의 실태와 경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 '제주 유기견과 경제와의 관계', 그리고 아직은 도입하기 빠르다고 하는 '반려동물세금'을 팩트체크하기 전에 우선은 큰 주제를 작은 주제들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 '마인드 맵'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4개의 분야로 나눠 팩트체크하기로 한다.



팩트체크(찾아보기)는 총 3차례 진행한다.

- ▶ 1차 1인 1주제 팩트체크하기 (무작정 관련자료 많이 찾아 읽기)
- ▶ 2차 소주제를 팀원끼리 교차하여 팩트체크하기 (주제별 검색자료 발표하고 궁금한 사항 질문하고 답하기)
- ▶ 3차 소주제별로 팀원전체가 다 함께 팩트체크하기 (각 주제별 보도자료 만들기와 근거 있는 통계자료 보완하기)
- ▶ 정기모임: 1주일 2회(수요일, 일요일)의 회의참석 필수
- ▶ 회의 진행자: 매 회의마다 돌아가면서, 1인의 진행자가 주도적으로 회의를 이끌어 간다.
- ▶ 과제 : 매 회의마다 다음 회의를 위한 과제를 내고 팀원은 과제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 회차별 계획은 아래와 같이 한다.

1회차 (2024.06.02.)	팩트체크 주제 선정과 팀의 각오와 의미에 대해 얘기나누기 → 팀 단체 사진 촬영하기
2회차 (2024.06.05.)	→ 반려동물 세금 관련 기사 찾아 읽기 → 제주의 유기견 관련 뉴스 기사 모아 읽기 → 주제 세분화 하기
3회차 (2024.06.09)	1단계 팩트체크하기(찾아보기) 1차 : 내가 맡은 소주제 뉴스의 내용 요약하고 발표하기, Q&A
4회차 (2024.06.12)	1단계 팩트체크(찾아보기) 2차 _ 보완, 교차하여 검색하기 → 국내 유기견의 현황과 제주 유기견의 실태 → 유기견의 증가로 인한 피해와 대책 → 유기견 보호시설의 현황과 운영
5회차 (2024.06.16.)	팩트체크 찾아보기 3차 → 국세청 <세금이야기> 스티디하기 : 세금의 필요성과 세금의 투명성 확인 방법 등에 대해 → 반려동물 세금의 정의와 목적, 대상, 기대 효과 등 → 반려동물세금 도입의 찬반론 팩트체크
6회차 (2024.06.19)	→ 반려동물, 유기견 관련 그림책 찾아 읽고 소감 나누기 → 우리끼리 토론해 보기 : 주제 <반려견을 키우고 싶을 땐 분양할까? 입양할까?>
7회차 (2024.06.23.)	팩트체크 찾아보기 4차 → 해외사례 연구 : 반려동물세 도입 전과 후 비교하기 → 동물복지에 대하여 : 반려동물 양육자 인식개선 → <동물보호법> 스티디하기 : 법제처

8회차 (2024.06.26)	2단계 팩트체크_ 물어보기 → 전문가와 인터뷰 내용 정리하기 1) 전문가에게 이메일 보내기(비대면) : 기자, 제주 동물복지팀장 2) 전문가에게 전화통화하기(비대면) : 티웨이 항공사 홍보담당자 → 우리 주변의 반려동물 양육자에게 직접 묻기 1) 내용 정리 : 조사 대상/목적/기간, 질문 만들기 2) 판넬 만들기
***설문조사 게시물 만들기(게시일 5일), 장소는 애견카페<소소다정> 반려동물 양육자의 설문조사하기(일반시민) : 제주 하귀일초 부근 100명 예정	
9회차 (2024.06.30.)	→ 2단계 팩트체크(물어보기), 3단계 팩트체크(직접 해보기) → 전문가 찾아가 인터뷰하기(대면) : 제주유기견보호센터 소장, → 제주 동물병원 수의사 인터뷰 → 제주 유기견 보호센터 자원봉사 체험
10회차 (2024.07.03.)	→ 창작 콘텐츠 구상하고 기획안 작성하기 → 설문조사 결과 확인하여 보고 자료 만들기 ***설문결과 보고서 작성하기
***설문결과 보고서 작성하기	
11회차 (2024.07.07)	리포트 작성 1
12회차 (2024.07.10)	리포트 작성 2
13회차 (2024.07.14.)	리포트 마무리하고 제출하기

체크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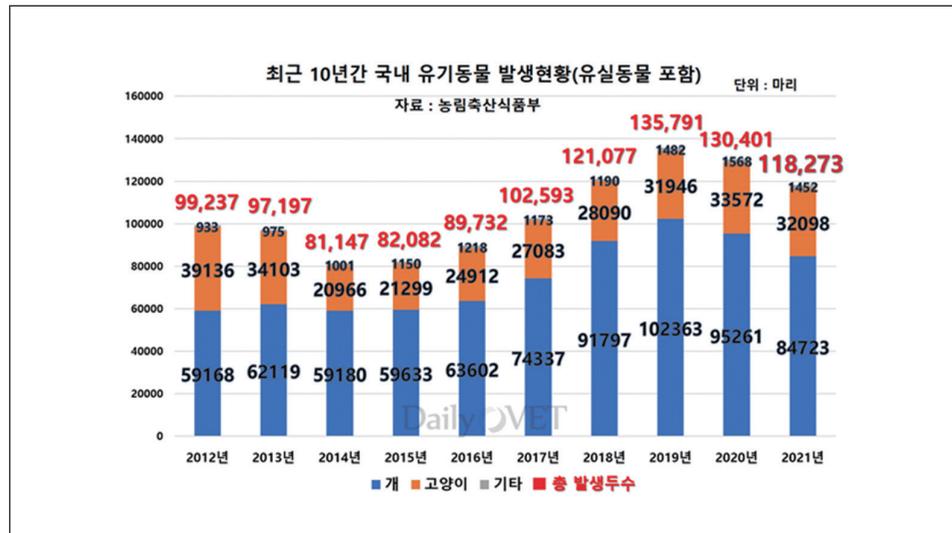
- ① **찾아보기**
- 들어보기
- клик해보기

뉴스 기사에 대한 근거 조사

1. 국내 유기견의 현황 VS 제주 유기견의 실태

1) 전국의 유기견 현황과 그로 인한 사회문제

경기 침체와 학령 인구 감소가 부산대 상권 쇠퇴의 원인인지 인과관계를 따져보기에 앞서, 먼저 실제 부산대 상권이 정말로 쇠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부산대 상권 공실률과 부산대 상권 및 주변 지하철역 유동 인구 자료를 통해 부산대 상권의 현 상황을 확인해 보자.



전국의 유기견은 얼마나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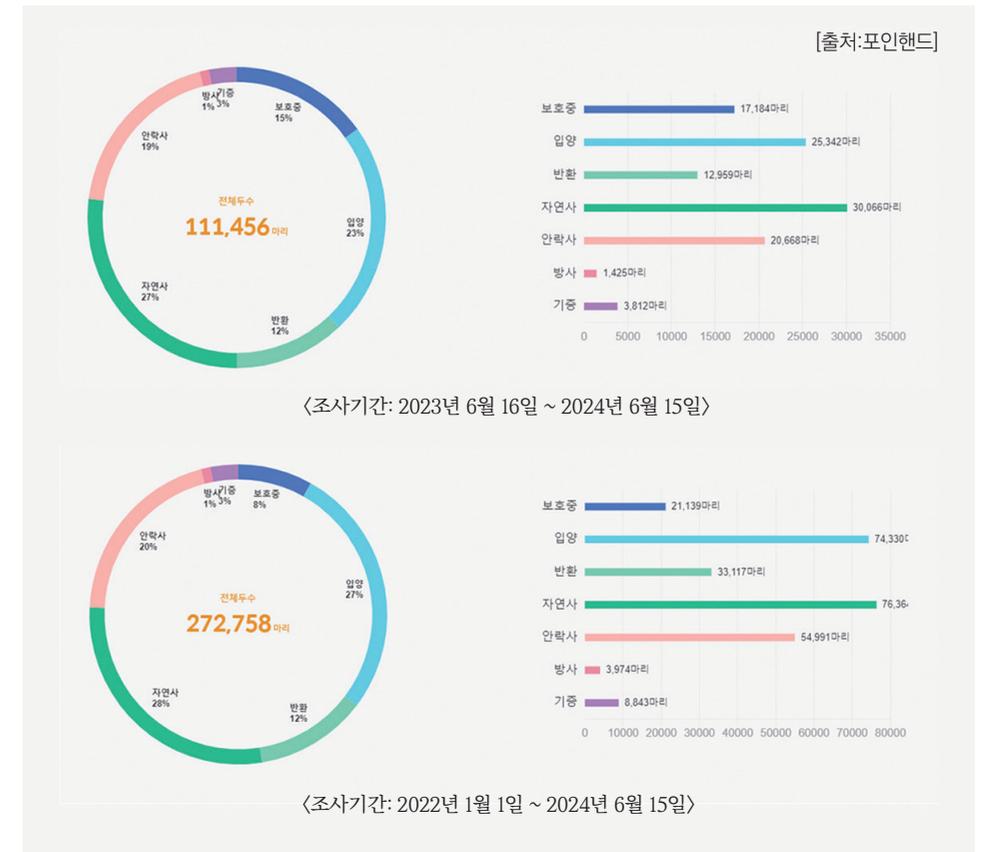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의 10년간의 유기동물 발생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10만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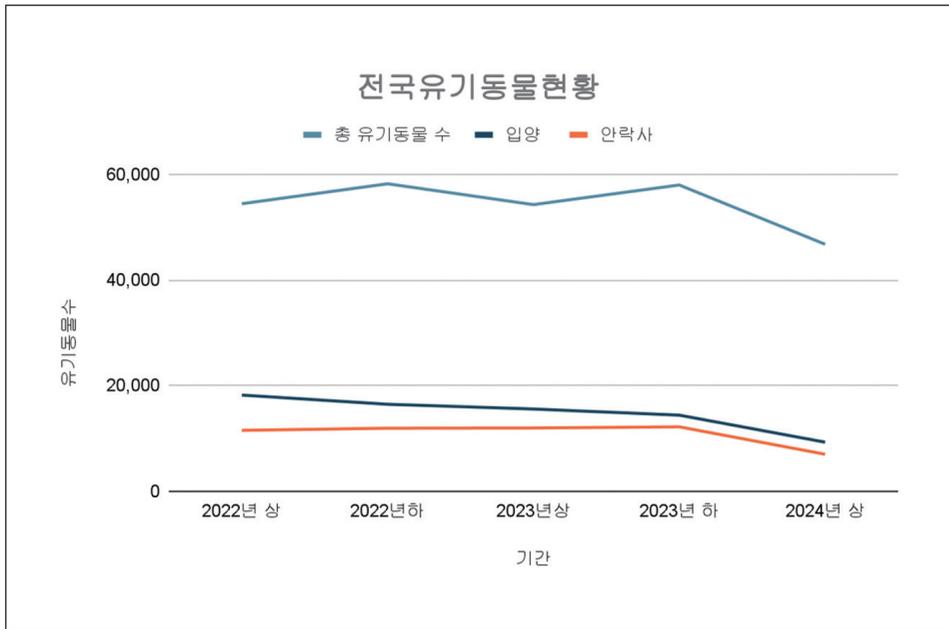
이상이 계속 유기되고 있고 그중 개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79894>]

국내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운영자, '포인핸드'의 2022년부터 조사한 유기동물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1년간 (2024년 6월 16일 ~ 2024년 6월 15일) 약 11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생겨나고 이중 23%가 입양이 되었고 19% 정도가 안락사 되었다. 반환과 자연사 등의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해마다 1만 7천 마리 정도가 계속 누적 보호 중에 있다.

유기동물입양플랫폼 운영자인 '포인핸드'에서 유기동물을 집계를 시작한 이후 현재 까지 전국의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총 두 수는 272,758마리 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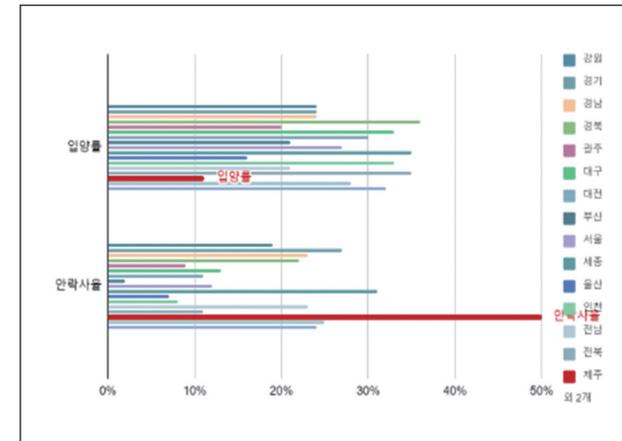




하지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기견을 보호 관리해야 하는 전국의 국내 동물보호센터는 총 222개로 검색되었고 그 밖에 보호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 시설도 있지만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최대 500마리밖에 보호할 수 없다고 하니, 이 많은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에는 보호시설의 수가 너무 적다. 특히 제주도는 총 2곳이 검색되었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제주 유기견보호센터'에서 대부분의 유기동물 관련 업무를 본다고 한다. [출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조의 단계를 거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관리되는 유기동물은 무기한 보호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 결국 입양이 되지 않는다면 인도적 처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전국의 유기동물의 입양과 안락사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의 입양률은 11%로 전국 최하위이고 안락사율은 50%로 최고의 수치를 나타낸다. [출처: 포인핸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입양률	24%	24%	24%	36%	20%	33%	30%	21%	27%	35%	16%	33%	21%	35%	11%	28%	32%
안락사율	19%	27%	23%	22%	9%	13%	11%	2%	12%	31%	7%	8%	23%	11%	50%	25%	24%



동물학대 및 소유자(반려인)의 사육·관리 의무를 명시해 이를 어길 시 동물학대로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와 사육 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제도를 도입했다. 반려동물의 수입·판매·장묘업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허가 영업소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6870>]

[출처: 동물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조 4항 1호]

그런데도 유기견이 해마다 늘어나고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기견이 생겨난다고 한다. [출처: 제주유기견 절반이 안락사, 전국 최대(뉴스1/2024년 5월 16일 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0223817>

▶ 관련뉴스

YTN · 6일 전 · 네이버뉴스

버려진 반려동물 늘고 입양은 줄고...보호센터 '포화'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보호동물 20마리 당 1명 이상의 보호·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1명이 최대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동물 수는 20마리인 건데, 입양되거나 주인이 찾아...



[출처: https://www.ytn.co.kr/_ln/0115_202406020206001546]

한국경제 PICK · 6일 전 · 네이버뉴스

"이러니 내다 버리지"...이유 있는 반려동물 유기 [법알못]

이 같은 범행에 대한 처벌 조항은 **동물보호법**에 존재하지만, 동물 학대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유기**가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출처: 이러니 내다 버리지...이유 있는 반려동물 유기 | 한국경제 (hankyung.com)]

3월23일 국제 강아지의날 파양견 유기견 없는 세상이 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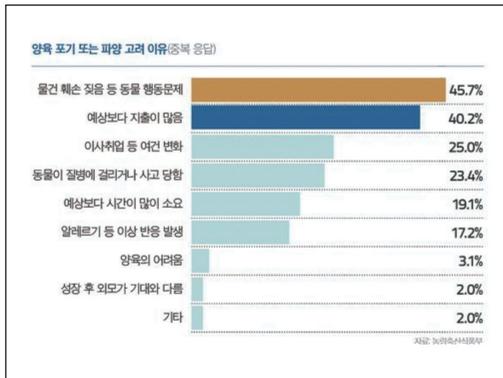
강아지의 날을 맞이해서 그 유래와 의미, 유기견과 파양견 문제를 생각해 보고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 포스팅에 나오는 강아지들 사진은 coffe&puppy와 쿤짱에서 본 친구들이...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건 어...



[출처: 3월23일 국제 강아지의날 파양견 유기견 없는.. : 네이버블로그 (naver.co)]

왜 사람들이 키우던 반려동물들을 유기하게 되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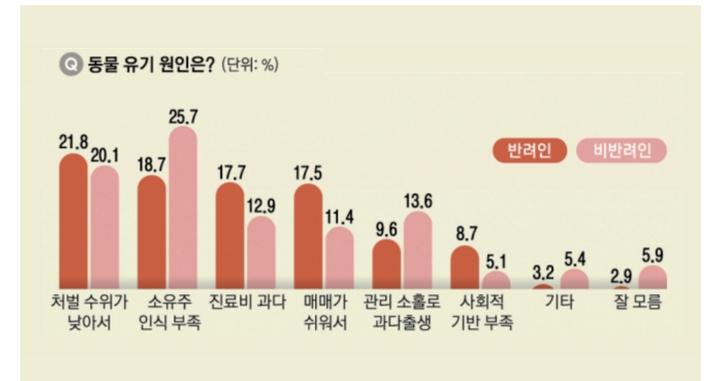
반려인들의 물었을 때의 답변은 ① 양육환경의 변화 ② 질병 ③ 배변 ④ 짖음 ⑤ 개물림 ⑥ 외모 등 이유는 다양하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살펴보면 양육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로 물건 훼손 짖음 등 동물행동문제가 1위, 경제적인 부담이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중앙] 반려가구 552만 시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려면 | 중앙일보 (joong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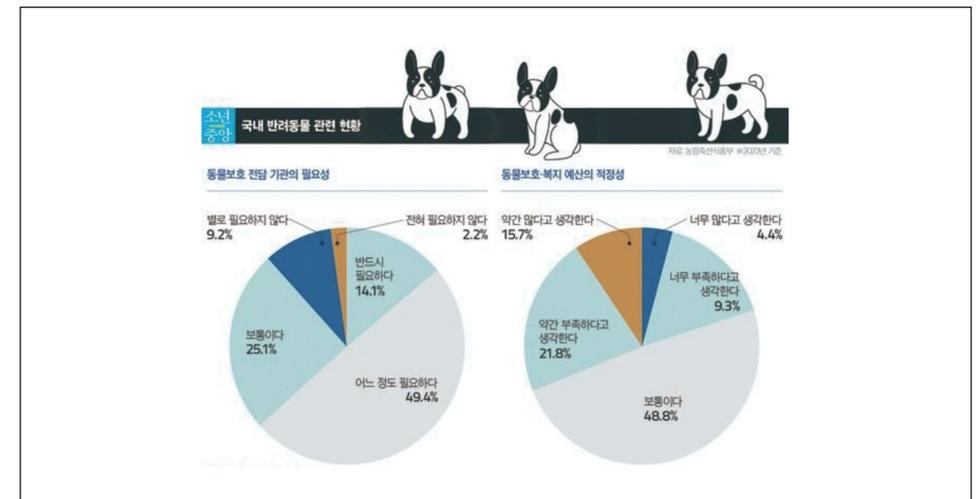
하지만 전국 동물보호감시원 33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동물이 버려지는 원인은 '소유주의 의식 부족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22.5%로 가장 높았다. ▲처벌 수위가 낮아서(20.8%) ▲진료비 과다(15.1%) ▲반려동물 매매가 쉬워서(14.2%) 등이

뒤를 이었다. [출처: [단독] 반려동물세 도입 땀 의료보험 등 혜택... "유기 늘어난다" 우려도 [2022]유기동물 리포트-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 서울신문 (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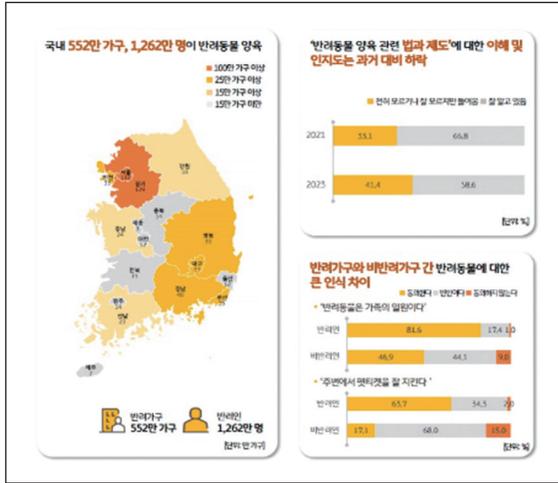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자신이 키우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본인에게는 가족과 같은 동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양육자로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윤리와 비양육자 및 사회에 대한 예절을 지키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양육 시 사전 교육 의무화, 정기적인 재교육 등 제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물전담기관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지만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의식조사'를 보면 긍정적인 의견은 50%도 되지 않는다.

[소년중앙] 반려가구 552만 시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려면 | 중앙일보 (joongang.co.kr)



2. 지금은 반려동물 1000만 인 시대, 우리는 어디쯤 와 있다.

1) 2023년 반려동물 가구는 552만 가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23년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2022년 말 기준 약 552만 가구로 2년 전인 2020년 말 536만 가구보다 2.8% 증가하였다. 이 조사는 지난해 11월 3~13일 전국 20~64세 5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출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출처: KB경영연구소 (kbf.com)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출처: 2024년 1월16일 영남일보 구영모 기자<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yeongnam.com)]

2) 이 조사로 반려동물 입양경로에 대한 응답에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41.8%)'이 가장 많았고, '펫숍 구입(24.0%)', '동물보호시설(지자체+민간)에서 입양(9.0%)'이 그 뒤를 이어 예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지인 무료 분양의 경우 지인 반려동물의 새끼를 분양받는 경우와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신 양육을 맡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반려동물 양육비용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서비스, 펫푸드 등에 소요되는 월평균 양육비용은 13만원 (병원비 4만 3천 8백원 포함)이었으며, 개의 양육비용(16만 6천원)이 고양이의 양육비용(11만 3천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에 대한 응답은 '동물병원'이 80.4%로 가장 높았고, '반려동물 미용(51.8%)', '반려동물 놀이터

(33.2%)', '반려동물 호텔(16.0%)' 순으로 이용이 많았다. 그 외에도 유치원, 비영리단체의 반려동물 양육 강의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 유실·유기 동물 및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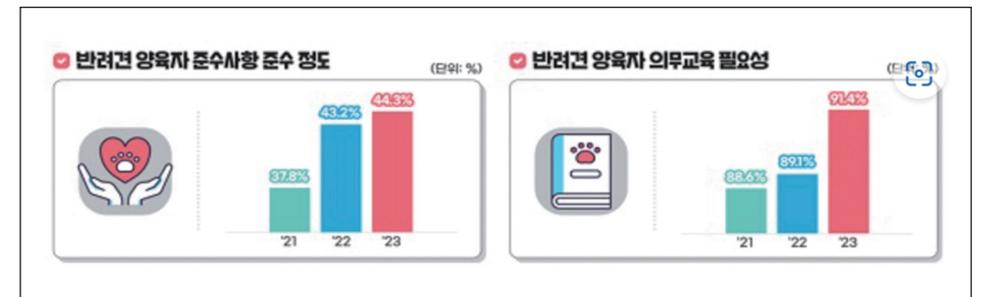
향후 1년간 입양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84.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동물 학대에 대한 감수성도 높아졌다. '물리적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뜬 장, 좁고 어두운 장소에서 사육, 냉·난방 미비)'도 동물 학대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과반 수 이상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5) 동물보호법에 대해 아는지의 질문에는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의 응답 비율이 71.8%로,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등록제 인지도 또한 6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변 시 수거 등 반려견 양육자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다'는 응답이 양육자·비양육자 평균 44.3%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반려견 양육자 대상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1.4%로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양육자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반려견 양육자 대상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1.4%로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제도, 양육자로서의 마음가짐,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수요가 많아 '펫티켓'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3.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나고 있는 펫 산업의 현주소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펫 산업이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삼정 KPMG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는 약 400조, 그중 1위 국가는 미국이고,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도 2022년 기준 8.5조원에서 2032년에는 21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8월 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먹이(펫푸드), 펫 헬스케어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 최근 뉴스 기사를 통해 정부 차원의 산업육성 계획에서부터 도시계획, 의학, 여행, 반려동물 장례문화 등 산업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mafra.go.kr)]

[출처: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 8.5조원 추산…2032년에는 21조원”: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1)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인프라 조성

▷ 내용: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반 여행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은 경비가 더 많이 지출되므로 관련한 숙박, 식음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개선해야 할 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를 선정하는 등 반려동물 동반여행 인프라 조성에 나서고 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를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과 반려동물 친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다만 반려동물 동반여행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은 초기 단계로 보다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4년 6월20일 내일신문 송현경 기자

[출처: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관광도시 등 관련 인프라 조성 확대 중 (naeil.com)]

2) 기획재정부의 반려동물 간담회계획

▷ 내용: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반려동물 산업육성 협의회가 처음으로 만나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 발굴하고 해외로 사업진출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6월 24일 뉴스1, 동물문화전문 최서윤 기자 [출처: 반려동물산업육성/뉴스1]

3) 의학계

▷내용: 반려동물 백신 3년 뒤면 2조원 규모예상.

2024년 6월22일 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출처: [이지 사이언스] ‘3년 뒤 2조원대’ 반려동물 백신…국내 개발 현황은 | 연합뉴스 (yna.co.kr)]

4) 여행 관련 교통 산업

▷내용: 김포공항과 항공사가 반려동물 친화 마케팅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한다.

▲ 국내선 항공기 출발기준 24시간 이전, 국제선 48시간 이전 예약하면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 가능하다.

▲ 요금은 반려동물 32kg 이하 기준 국내선 3만원, 국제선은 14만원부터 차등 지불하면 된다.

▲ 참여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사가 등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 타볼까”

입력 : 2024.06.24 15:31 | 수정 : 2024.06.24 21:31 정유미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등 펫 서비스 눈길
김포-인천국제공항에는 펫 전용 일터가든

항공업계가 반려동물 친화 마케팅에 경쟁적으로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휴가 때마다 소중한 반려동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걱정하는 1500만명 반려가구를 고객으로 모시기 위해서다.



2024년 6월24일 경향신문 정유미 기자

[출처: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 타볼까” - 경향신문 (khan.co.kr)]

2024년 6월24일 한경매거진 윤소희 기자

[출처: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 타요...반려동물 서비스 확대하는 항공업계 | 매거진한경 (hankyung.com)]

5) 장례문화

▷내용: 반려동물양육 인구 1500만 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족처럼 오랫동안 함께 해온 반려동물의 장례문화에도 변화가 많다. 반려동물은 증가하는데 비해 장례식장의 수요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동물보호 시스템에 장묘시설 등록된 곳은 75곳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2024년 6월20일 한국경제신문 최해련 기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mafra.go.kr)]

[출처: 강아지 장례식에 100만원...안 할 수도 없고 반려인들 눈물 | 한국경제 (hankyung.com)]

4. 국가에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농림축산식품부의 <5개년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한 정책>을 들여다보다

1)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쟁의 배경과 내용

반려동물가구가 늘어나자 2020년 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앞으로 5년간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한 정책을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에는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인식개선, 반려동물 관리, 유기, 피학대동물 보호 등 공동사회의 목표를 위해 책임감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

6대 분야	연도별 정책 주요 과제 추진 로드맵				
	2020	2021	2022	2023	2024
1)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화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의출시 목줄 길이 제한	·소유자 의무 교육 확대 ·가정행위 범위 확대		
2)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생업 서비스업 기준 개선	·무허가 영업 처벌 강화	·인터넷 반려동물 판매 제한	·반려동물 국가 자격 운영	·반려동물 이력 시스템 운영
3)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기준 강화 마련	·동물 인수제 근거 마련 ·피학대 동물 구조 범위 확대	·시설보호소 신고제 도입		
4)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적용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 가맹	·윤송 단계 강화 적용	·도축 기준 적용	·동물복지축산 인증범위 확대
5)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사육동물 실험 요건 강화	·동물실험계획 심의 범위 확대		·대체시험법 보급 구축	
6)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인구조사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포함	·동물복지위원회 가맹		·동물보호 전문 기관 구축	

있다. 연도별 5개년의 추진정책을 보면 아래와 같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종합계획 (2020~2024년 5개년)]
[출처: 동물복지 종합계획 [똑똑한 정책뉴스] | KTV 국민방송]

그 중 반려동물과 관련된 부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0	2021	2022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신청 후 판매 ·인식표 방식 폐지 ·변경신고의무를 정기적 통보 ·등록대상을 모든 개로 확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보호, 복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맹견 동물등록,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 ·맹견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화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 제한, 수감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전 교육 의무화 ·위험한 개의 공격성 평가 ·동물학대 행위 예시적, 포괄적 규정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 구체화
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생산업 인력기준, 동물출산주기사육 공간제공 등 기준 강화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개체관리카드에 생산·판매(경매)업 허가등록 번호기재를 우선 의무화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근거 마련 ·수분해장 등 동물 장묘 방식 확대 ·가정동물서비스(일명 펫시터) 및 이동식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 마련 ·동물 관리수준, 서비스 품질 우수한 영업자 인증방안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생산업 시설개선 지원 ·무허가 영업자 벌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자 이외 온라인 반려동물 판매 홍보 금지 ·반려동물 훈련 자격검정 구축
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 ·반려동물 동반 대피요령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보호센터 기준강화 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광역 단위 포획반 구성 지원 ·동물학대의 우려가 판단되는 경우 격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보호소 신고제 도입 ·광역시·도에 시설보호소 관리의무 부과 ·시·도에서 시설보호소 환경개선 사업추진시 예산 지원 ·시설동물보호소로 신고한 시설의 유기동물 유상 분양 금지

내용을 보면

▲ 먼저 유기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쉽게 사고파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사고팔 땐, 구매자 명의로 동물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 2022년부터는 업자를 통해 동물을 구입할 때 구매자가 일정한 사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보호자에 대한 책임이 한층 강화하고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한다.

▲ 승강기와 같은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 한다.

▲ 동물학대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다음과 같은 법에 명시된 동물 학대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죽이는 경우 등
- 학대의 정도가 심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를,
-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등
- 처벌강화
- 위반한 경우 징역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 역시 2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소유권을 제한한다.

▲ 동물등록 절차 개선 및 대상 동물의 범위 확대

- 등록 대상 동물 판매 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이 된 상태에서 판매
- 바이오 인식을 활용한 동물등록 방식 연구 개발 결과에 따라 외장형 인식표 사용 방식 폐지(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도 폐지 검토)
- 내년까지 월령과 상관없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모든 개로 등록 대상 동물 범위 확대

▲ 개물림 사고 예방 체계 구축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 맹견 수입 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추진

- 등록 대상 동물 산책 시 목줄 길이 2m 제한

- 사람을 문 적이 있거나 위협한 적이 있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 및 안락사 명령 등 의무부과체계 마련

▲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 유실,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동물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개선
- 사유가 있다면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 근거 마련

2) 특히, 이번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 거버넌스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제반 장치를 의미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수 제한 삭제, 사후 점검 기능 강화, 사역 동물을 실험에 이용 시 처벌 수준 강화(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지원 전문기관 구축

▲ 반려동물 보유세, 부담금, 동물복지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반려동물의 세금을 통해 책임의식을 부과하고 지자체의 유기동물보호센터 등의 운영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 이번 동물복지종합계획의 핵심이다.

3) 5개년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한 정책 발표 이후

그렇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정책을 발표한 후 3년이 지나 조사한 2022년 반려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로 알아본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조사됐다. 전년도에 비해 등록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유기동물 구조도 전년도 보다 4.1%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유기동물 중 입양률도 27.5%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출처: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출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관련 실태조사 및 국민의식조사 (animal.go.kr)]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관련주제시계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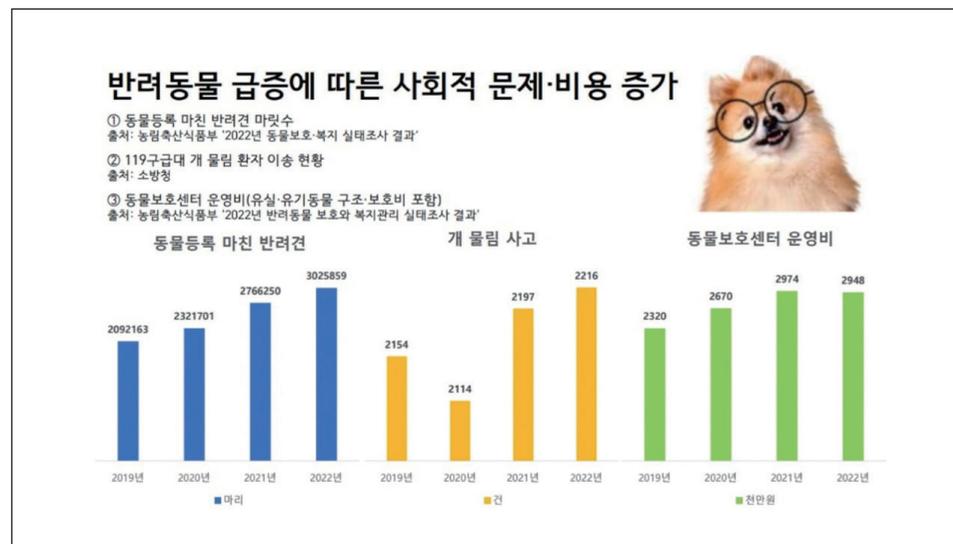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 2023.08.14 | 8p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2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8.13.(일) 발표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22년 말 기준 전국(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음.
- 실태조사 결과 반려견은 290,958마리가 신규 등록되어 총 3,025,859마리(2021년 대비 9.4% 증가)가 등록되었음.
- '22년 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113,440마리('21년 대비 4.1%감소)로 그 중 31,182마리(27.5%)가 입양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보 및 통계가 실시간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구조 동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4)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개물림사고 건수는 2019년 2154건에서 2022년 2216건으로 집계됐다. [출처: 농수축산신문(http://www.afnews.co.kr)]



5) 관련뉴스 기사

▷ 표제: 반려가구 552만 시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려면

▷ 소년 중앙일보 2024년 2월5일 김현정 기자

기사요약: 반려동물. 인생의 동반자를 뜻하는 반려(伴侶)로서 인간과 더불어 사는 동물을 뜻한다. 2020년 말의 536만 가구와 비교해 2.8% 증가했죠. 대한민국 인구 5175만 여 명 중 1262만여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반려가구의 81.6%가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며, 67.3%는 반려동물 양육에 만족하고 있다. 반면 반려인으로부터 학대당하거나 버림받은 동물 또한 매년 늘고 있다. 구조·보호된 유실·유기동물은 최근 몇 년간 매년 10만 마리 이상 집계되고 있고, 동물 학대 신고도 계속 발생해 2021년 5197건에서 2022년 6594건으로 약 20% 증가했다.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유기동물도 줄지 않아 개물림, 학대 등 생명권과 동물 복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

[출처: [소년중앙] 반려가구 552만 시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려면 | 중앙일보(joongang.co.kr)]

▷ 표제: 여름철 개 물림 사고 집중... 더운 날 폭력성 높아져

▷ 영남일보 2024년 7월 12일 오주석 기자

기사요약: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6월)까지 총 85건의 개 물림 사고가 접수됐다. 개 물림 사고는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해 중 가장 무더운 시기인 7월(105건)과 8월(105건)에 전체 사고의 22%가 발생했다. 불쾌지수가 최고조로 상승하는 여름철에 개의 폭력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처: 여름철 개 물림 사고 집중...더운 날 폭력성 높아져 (yeongnam.com)]

5. 우리나라 동물복지 예산은 충분한가?

1) 관련 뉴스기사 1

▷ 표제: 농식품부 예산의 0.1%, 동물복지

▷ 한국일보 2023년12월 27일

기사요약: 2023년 120억 원 규모였던 우리나라 동물호보 및 복지를 위한 중앙정부

예산이 2024년에는 약간 확대 편성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동물보호 및 복지 예산은 대부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유기동물보호센터와 길고양이 중성화에 사용된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과 해외수출산업화 예산은 별도다. 동물복지축산 관련 예산은 10억 원 남짓이다. 해당 행정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은 18조 3,000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니 동물보호 및 복지에 할당된 0.1% 이하 수준이다. 이 예산은 적정한가? 2023년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2022년 약 110억 원 기준)이 부족하다고 느낀 응답자는 약 30%,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 그룹은 약 20%였다. 절반의 시민은 이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약 600만 마리의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약 400만 마리의 소와 1,100만 마리의 돼지, 1억 마리의 육계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편성된 예산은 의미 있는 예산으로 보기 어렵다. 나라예산토론회에 참석한 한 동물보호단체는 ‘전근대적인 국가예산’이라고 비판하며 ‘동물의 복지를 확보하는 선진국형 예산’으로 변경할 것으로 촉구했다. [출처: 농식품부 예산의 0.1%, 동물복지 | 한국일보 (hankookilbo.com)]

2) 관련 뉴스기사 2

▷ 표제: 농림부 24년 예산 18조.. 동물정책 예산 얼마나 될까

▷ 파이낸셜뉴스 2024년 2월 21일

기사요약: 동물 관련 사업을 주로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사업의 예산은 소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예산은 16조 2856억원, 2022년 예산은 16조 8767억원, 2023년 예산은 17조 3574억원이고, 2024년 예산 및 기금은 18조 3330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2022년은 10억원이 조금 넘는 예산이 편성됐고 2023년 예산은 9억원대로 감액됐다. 2023년 기준 동물복지 농장수는 관행적인 공장식 축산농장 규모의 1%도 못 미치고 있다.

[출처: 농림부 24년 예산 18조.. 동물정책 예산 얼마나 될까 (daum.net)]

3) 관련 뉴스기사 3

▷ 표제: 역대 최대라는 농식품부 예산 18조 가운데 동물복지는 ‘찔끔’

▷ 한국일보 2024년 2월 22일

기사요약: 동물권행동 카라가 최근 4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을 분석한 ‘대한민국 동물복지 사업과 예산 현주소’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은 120억 원에 불과하다. 2021년 52억 원, 2022년 110억 원, 지난해 119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다 올해는 1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는다.

[출처: 역대 최대라는 농식품부 예산 18조 가운데 동물복지는 ‘찔끔’ | 한국일보 (hankookilbo.com)]

4) 해외 여러 나라의 동물복지 예산은?

영국의 경우 2018년도 기사 기준으로 약 1800억원, 우리나라의 15배의 예산이 동물 복지를 위해 쓰인다.

[출처: 동물복지 해외사례 < 식품·유통 > 관련산업 < 기사본문 - 축산경제신문 (chukkyung.co.kr)]

7. 우리나라 동물복지 사업과 예산의 불균형

▷ 기획재정부 사이트의 2024년도 국가 예산 편성에서 달라진 수많은 정책들 중 동물복지에 대한 예산의 변화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출처: 한눈에 보는 정책 (moef.go.kr)]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4년간 동물 관련 사업과 예산을 분석하는 보고서인 '대한민국 동물복지 사업과 예산 현주소'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은 120억 원으로 유실·유기견의 근본적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마당개 중성화 사업의 경우, 2021년에는 아예 예산이 없었다가 2022년에 15억 원, 2023년에 15억 6,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는 14억 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은 총예산 중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카라 : 대한민국 동물복지 사업과 예산 현주소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관련 사업 예산 분석 리포트 (ekara.org)]

반려동물 세금이 반려동물 증가로 생겨난 사회문제의 해결책인가?

①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목적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5개년 동물복지계획을 발표하고 그 운영 결과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보유세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반려동물 양육자가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하려는 목적도 크다고 한다. 특히 반려동물 보유세로 사회적 부조화 현상들, 즉 극심한 유기동물 문제, 갈수록 잔혹해지는 동물학대, 빈번한 개물림 사고, 길고양이와의 공생, 비반려 주민과의 갈등 같은 사회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동물전담행정기구'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의 도입을 놓고 찬반의 의견이 팽팽하다.

• 관련 뉴스기사

▷ 표제: 반려동물세 도입 땀 의료보험 등 혜택... "유기 늘어난다" 우려도 - 반려동물세 국민인식 첫 조사

▷ 서울신문 2022년 6월 26일 유대근, 최훈진, 이주원, 이근아 기자

기사요약: 서울신문은 이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과 공동으로 '동물권 보호 관련 국민인식 조사'를 했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힌트가 담겼다. "(반려묘를) 등록하면 혜택이 있나요?"(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원희룡 당시 대선캠프 총괄정책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개한 '59초 쇼츠' 영상에서 반려동물 등록세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든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 징세는 표가 되지 않기에 정치인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서다.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세금 걷는 건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문제"라면서 "증세보다는 세출 조정을 통해 동물복지 공약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② 반려동물 도입의 찬반론



[출처: 서울신문 2022년 6월 27일 기획연재 유기동물 리포트]

만약, 국내에서 반려동물 1마리당 연간 10만원의 보유세를 걷는다면

7430억원 (약 743만 마리×10만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올해 동물 복지 예산이 150억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재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다. 반려동물세금납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그 필요성이 느껴져서이다.

[출처: <https://www.newsp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79>]

반려동물에 보유세 징수, 국민 2명 중 1명 찬성했다: 국민 2명 중 1명(55.6%)은 동물권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동의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출처: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2/06/26/20220626500073>]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시급하다: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가 주종이며 애완동물 증가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9319>]

이러한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다 해도 경제적 부담이 커진 반려인들 때문에 오히려 유기동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하는 의견도 많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한 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병원비를 포함해 월평균 약 13만원

으로 나타났다. 개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월평균 16만 6000원이었다.
고양이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월평균 11만 3000원으로 개보다 낮았다고 한다.
[출처: 경향신문 2024년 1월 16일자]

③ 여전히 반려동물세금을 내는 해외국가들

해외 반려동물세 현황		
국가	연간 세 부담	특징
독일	약 192만8000원 (베를린시 기준)	건종-무계 따라 차등 머릿수 늘면 누진세 적용
네덜란드	약 162만3000원 (헤이그시 기준)	네덜란드 전국 지자체 355곳 중 193곳(54%)에서 부과
미국	약 4만원 (뉴욕시 기준)	중성화 수술 시 약 1만원 인식표 착용 의무화
싱가포르	약 6만원	중성화 수술 시 약 1만원 반려 견 수 1인 최대 3마리로 제한
영국	약 15만원	1987년 폐지 후 유기견 증가 이유로 부활 추진

반려동물 보유세 법안을 보유한 국가는 독일,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폴란드, 체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나미비아, 호주 등이 있다.

▶ 독일

1809년에 도입을 시작한 독일의 반려견 복지 변화는 대표적인 것이 중성화수술 경제적 지원, 강아지 예방 접종, 건강검진 무료지원, 공원마다 배변봉투, 배변봉투 전용 쓰레기통 설치 등이 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4만 5000유로(6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2024년부터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사는 게 금지돼 전문 보호소를 통해서만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독일 동물보호법엔 이런 금지조항이 쓰여 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것, 동물을 버리는 행위, 인지가능한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고 하며 입양할 때 강력한 조약도 있다. 종합적으로 이런 법 때문에 독일에는 거의 유기견이 없다고 한다.

▶ 네덜란드

‘반려동물의 천국’이라 불리는 네덜란드에서는 반려견이 버스를 타고 식당과 호텔을 자유롭게 출입한다. 개 전용 대중교통 패스(하루 3유로)도 있다. 반려견을 사람처럼 사회 구성원으로 대우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반려견의 건강 정보가 담긴 여권 발급을 의무화했다. 세금도 낸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헤이그시(市)에서 개 한 마리를 키우려면 반려동물보유세에 해당하는 연간 124유로(약 16만원)를 내야 한다.

▶ 미국

미국 뉴욕시는 매년 34달러(약 4만원)의 ‘반려견 자격증(Dog License)’을 갱신하는 것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중성화 수술을 받았을 경우 8.5달러(약 1만원)로 세금을

확 낮춰준다. 반려견을 시 당국에 등록하면 인식표를 지급하는데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이나 하네스에 달아야 한다. 인식표를 분실해 재발급 받으려면 1달러, 세금을 내지 않고 연체했을 땐 2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 프랑스

‘프랑스에서 반려견을 보호하는 법은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프랑스는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4만 5000유로(6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또 2024년부터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사는 게 금지돼 전문 보호소를 통해서만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게다가 입양할 때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필수적으로 고지하고, 구매자는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키울 능력이 없는데도 개나 고양이를 들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영국

영국은 가장 빠른 1796년에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반려동물 세금을 도입했다가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키우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부작용과 애완견을 등록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조세 저항으로 1987년에 반려세를 폐지했다. 그런데 최근 다시 도입을 논의 중이다, 그 이유는 뭘까?

첫째, 정부의 추가 재정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세금을 다시 도입할 것이라 한다.

둘째, 반려동물 등록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특히 유기 동물 문제를 줄이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을 위해서다.

셋째,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부 반려동물(특정 품종의 개)의 소유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서다.

넷째, 반려동물의 배설물 관리나 자연보호 구역에서의 반려동물 출입을 통제 환경을 보호하려고 한다.

다섯째, 반려동물 소유자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출처:조선일보 2020년2월11일 문일요 더 나은미래 기자]

또 가까운 중국에서도 약 우리나라 돈 17만 원 정도의 등록비를 내고 있고 영국이나 미국, 호주 등은 매년 갱신 비용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1500만 반려인시대의 우리나라는 반려동물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며, 2022년

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8. 동물복지 향상과 국민의식 변화의 노력들

1) 유기견을 입양하자는 캠페인에 대기업 항공사들이 동참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동물보호센터와 티웨이항공, 포인핸드 3사의 MOU 2023년 11월 20일부터 약 1년 동안 유기 동물 입양 캠페인에 힘을 합치고 있다. 제주 유기동물의 육지 입양 활성화를 위한 ‘날개를 달아줄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 유기동물 입양 시 반려동물 운임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있는 만큼 캠페인을 통해 많은



유기견이 가족을 만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출처: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실시 (vegannews.co.kr)]

이 캠페인을 통해 제주의 유기견 ‘굴이’가 티웨이 항공을 타고 경기도 고양시 거주하는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보금 자리를 찾아간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출처: “날개를 달아줄게”... 제주 유기견 ‘굴이’ 새 가족 품으로 | 세계일보 (segye.com)]

2) 전국 최초의 무료 진료 시작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소

(2024년 6월 22일 뉴스1, 이시명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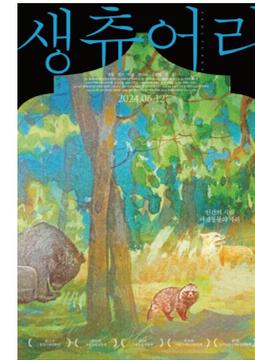
시민들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기초진찰·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내장형 동물 등록, 광견병 예방접종 등엔 일부 비용이 필요하다. 김포시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성숙한 육성 문화 의식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

를 개정하면서 전국 최초로 센터를 개소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한다.

[출처: 김포시 공공진료센터 개소 - 뉴스1 (news1.kr)]

[출처: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gimpo.go.kr)]

3) 동물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청주 동물원과 왕민철 감독의 영화 ‘생츄어리’ 지난 6월



12일 다큐멘터리 영화 ‘생츄어리’의 감독 왕민철 감독은 동물원의 생생한 모습을 다룬 영화 ‘동물, 원’으로 한 차례 화제를 모았었다. 이번엔 그 후속작인 ‘생츄어리’를 통해 “한국에도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 설립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왕 감독은 전작 ‘동물, 원’에서 2015~2018년 청주동물원 야생동물과 그들을 돌보는 수의사, 사육사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었다.

[출처: 동물 구조·보호에 특별히 노력 기울이는 청주동물원 | 주간동아 (donga.com)]

4) 개식용금지 국회 법안 통과, 3년간의 유예를 거쳐 2027년부터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시민의식 설문조사

- 대상: 제주도 우리 학교 주변의 반려인 50명에게 묻다.
- 주제: “여러분은 반려동물 세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설문목적: 우리 주변 반려인의 의식조사와 반려동물세금정보를 홍보한다.
- 설문조사 게시일: 2024년 7월 1일~7월 5일까지
- 장소: 제주 애월읍 하귀, 반려인 방문 가능한 카페 <소소다점>



< 설문조사 SNS게시 화면과 현장스케치 >

① 조사결과

Q1. 여러분은 반려동물세금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33표	19표
63.5%	36.5%
100%(52표)	

Q2-1 (찬성에 답변하셨다면) 세금으로 어떤 지원을 희망하십니까?

의견	표수	비율
반려동물 병원, 치료비	24	73%
반려동물 식품비	1	3%
반려동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8	24%
합계	30	100%

Q2-2 (찬성에 답변하셨다면) 반려동물세금은 연간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	표수	비율
연간 5~10만원	22	67%
연간 10~15만원	10	30%
연간 15만원 이상	1	3%
합계	33	100%

Q3-1 (반대에 답변하셨다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견	표수	비율
경제부담의 증가	10	53%
반려동물 관련 산업 축소 우려	1	5%
세금 사용을 신뢰할 수 없어서	8	42%
합계	19	100%

Q3-2 (반대에 답변하셨다면) 그렇다면 지금의 반려동물 복지에 만족하십니까?

만족	불만족
4 표	15표
21%	79%
100%(19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동물복지에 바라는 점을 적어주세요.

배설물을 치워주는 공공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음식점에 출입제한 하는 법보다
개인사업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문화와 의식 교육환경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책임감 있는 일인지 알았으면.

②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 우리 주변의 반려양육자에게 반려동물세금의 정보를 알리고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총 52명의 주민이 참여해 주셨다. 반려동물 세금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반려인도 많아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세금을 도입한다면 세금 관련 홍보가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려동물세금을 내겠다고 답변한 반려인이 63.5%를 넘었고 그 적정한 금액은 1년에 5~10만원이라고 응답한 수는 67%이고 2위로 10~15만원을 내겠다는 응답도 30%나 됐다.

세금을 내고 꼭 지원받고 싶은 비용은 역시 73%로 병원비나 치료비의 지원이 가장 많은 응답표를 얻어 반려동물의 병원비 부담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반려동물세금을 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도 36.5%의 응답이 나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금이라는 추가비용 지출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답변이 반대의견 전체 응답의 53%를 차지하고 두 번째 이유로는 세금의 사용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으로 42%나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동물복지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응답이 79%가 나와 현재의 동물복지를 변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질문인 '우리나라 동물복지에 바라는 점 한마디'에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동네만의 설문조시였지만, 결론적으로는 반려동물세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정선의 납부 금액을 부과해서 그에 합당한 지원과 혜택을 준다면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세금 도입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2. 이메일 인터뷰

제주동물보호센터 송경옥 팀장님과 주고받은 이메일



Q1. 제주에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몇 개나 있나요? 민간 보호소 등을 포함하여 보호할 수 있는 동물의 수는 어느 정도 인지 알려주세요.

Q2. 제주에 유기동물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Q3. 제주도와 티웨이 항공사, 포인핸드가 함께 손을 잡고 제주 지역의 유기동물을 타 지역으로 입양 보내는 캠페인을 하고 계신데요, 유기동물이 타 지역으로 입양하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Q4. 반려동물세금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입되어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Q5. 마지막으로 반려인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쁘시겠지만 7월 3일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귀일초등학교 변화원 올림

Q1. 제주에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몇 개나 있나요? 민간 보호소 등을 포함하여 보호할 수 있는 동물의 수는 어느 정도 인지 알려주세요.

-> 제주도내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1개소이며, 평균 200~300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Q2. 제주에 유기동물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인구수 대비하여 타 지역보다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관광객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유기동물 신고와 적극적인 포획 활동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동물이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Q3. 제주도와 티웨이 항공사, 포인핸드가 함께 손을 잡고 제주 지역의 유기동물을 타 지역으로 입양 보내는 캠페인을 하고 계신데요, 유기동물이 타 지역으로 입양하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효과가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입양 활성화 취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Q4. 반려동물 세금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입되어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 반려동물 세금 도입이 된다면 동물등록이 확대되어 유기동물 발생도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유기동물 보호센터 입장에서 보호동물에 대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동물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5. 마지막으로 반려인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펫티켓(공공장소에서 반려견과 산책 또는 외출 시 배변 봉투 지참하여 배설물 즉시 수거하기, 목줄과 인식표 착용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유기동물 발생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과 중성화수술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나갔으면 합니다.

알아보기
물어보기
③ 직접해보기

동물권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기

관련 그림책 나눠 읽고 동물권에 대해 생각해보기



♣ 저자 유리 / 출판사 이야기꽃
 유준: 「돼지이야기」는 돼지가 죽는 장면도 나오고 새끼를 낳는 것도 나오고 돼지가 마지막에 굴에 떨어지게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돼지는 1000만 마리에 돼지들이 살고 있다. 새끼를 낳을 때는 분만틀에 있다. 아기돼지를 활아주거나 안아주는 것은 할 수 없다. 새끼가 나오면 새끼를 잘 낳을 것 같은 암컷은 번식 돼지우리로 이동된다. 나머지는 고기가 된다. 병을 전염병에 걸리면 죽인다. 살처분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엔 사람들이 돼지들을 구덩이로 떨어트리기도 한다. 왜 동물을 떨어트릴까 이상하고 불편한 생각이 든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 구덩이에 떨어트리면 안된다. 이렇게 잔인한 것을 생각하니 슬프다.

♣ 글 표영민 / 그림 강산 / 출판사 길벗어린이
 유준: 「돼지이야기」는 돼지가 죽는 장면도 나오고 새끼를 낳는 것도 나오고 돼지가 마지막에 굴에 떨어지게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돼지는 1000만 마리에 돼지들이 살고 있다. 새끼를 낳을 때는 분만틀에 있다. 아기돼지를 활아주거나 안아주는 것은 할 수



없다. 새끼가 나오면 새끼를 잘 낳을 것 같은 암컷은 번식 돼지우리로 이동된다. 나머지는 고기가 된다. 병을 전염병에 걸리면 죽인다. 살처분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엔 사람들이 돼지들을 구덩이로 떨어트리기도 한다. 왜 동물을 떨어트릴까 이상하고 불편한 생각이 든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 구덩이에 떨어트리면 안된다. 이렇게 잔인한 것을 생각하니 슬프다.

♣ 저자 박정섭 / 출판사 웅진주니어



지상: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강이라는 강아지가 입양되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하지만 결말이 너무 슬펐던 것 같다. 우리에게 넣어놓고 강아지가 아픈데도 무관심했던 주인으로부터 위탁 누나에게 제대로 보호받게 돼서 안심됐다. 그런데 갑자기 입양을 간다고 해서 마음이 불안했다. 하지만 좋은 아이들을 만나 보호받게 돼서 다시 마음을 놓았었는데 아이들이 가자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아이들을 기다리다 죽어버린 이 강이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 슬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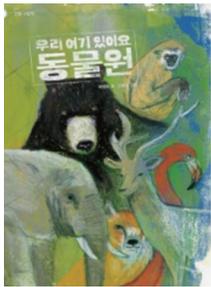
♣ 저자 이수지 / 출판사 비룡소
 지상: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아팠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가 거울 속 자신과 대화하다가 얼어 죽은 이 강아지가 너무 불쌍하다. 게다가 거울 속 강아지의 모습이 하얀 털이 더러워져 검은 털이 된 자기의 모습과 달라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다. 게다가 마지막까지 주인을 믿고 버티는 모습을 보니 만약 나였으면 알았을 때 주인이 정말 미웠을 것 같다.

♣ 저자 루스윌록스 외 출판사 봄나무
 민준: 이 책은 안내견이 되기 위해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지, 교육 후에는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게 해 준 책이다, 이 책의 한 문장 평가는 '설명이 자세하고 재밌다.'



이다. 주인공 강아지 리노는 유머감각이 뛰어나서 재미있는 말로 따분한 책의 MSG를 술술 뿌려준다. 유머 있는 강아지를 상상하니 꼭 친구 같은 생각이 든다,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안내견 훈련을 받은 모든 강아지가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도 그렇다,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모두가 같은 결과를 낼 수는 없다, 동물의 삶도 어쩐지 인간들의 인생과 닮아서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 글 허정윤 / 그림 고정순 / 출판사 반달(킨더랜드)



민준: 동물원에 현실을 보여준다. 주인공 사자 래오는 동물원에 온 다른 동물들에게 동물원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예를 들면 뽀족한 이빨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날에 이빨이 다 뽑힐지 모릅니다. 등 끔찍한 내용이 책에 적혀있다. 인간의 시점으로 보면 “와 정말 끔찍하다.”이겠지만 동물의 시점으로 보면 남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끔찍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 끔찍함을 넘어 경악이 악하고 입이 찌억 벌어질 것 같다. 진짜 동물원의 동물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서 지내는지 마음이 슬프다.



♣ 저자 조원희 / 출판사 느림보

하원: 한 강아지가 공원을 혼자 걸어간다. 푸른 안개를 따라 온 강아지는 검은 개를 만난다. 그 주변에는 떠돌이 강아지, 아픈 강아지, 할아버지 개 등 많은 강아지들이 있었다. 검은 개가 피리를 불자 강아지들이 그 검은 개를 따라갔고 곧 강이 나왔다. “여기부터는 혼자 가야 해.” “슬퍼하지 마. 난 그냥 강을 건너가는 거야.” 강아지는 강을 건넜다. 사랑하는 강아지를 먼저 떠나보낸 주인과 주인을 떠나 혼자 강을 건너는 강아지, 그 둘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돼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야 할 강아지도 앞으로 잘 지내서 나중에 주인이 그 강을 건너오면 강아지가 반갑게 맞아줬으면 좋겠다.

♣ 저자 박자울 / 출판사 밝은 미래



하원: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되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버려진 강아지 치림.

치림이의 이야기 「모두의 개」는 실제 치림이의 임시보호자였던 작가의 실화를 배경으로 쓰인 그림책이다. 처음 입양이나 분양받아 반려견을 데려갈 땐 진짜 가족이 될 것처럼 데려가서는 책임감 없이 날 또 버린다. 두 번 버려진 강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슬프다가 화까지 난다. 언제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사람들이었다고 치림이는 생각한다. 그리고 또 새 주인에게 다가간다. 또 기다린다.

그밖에 읽어 본 그림책



제주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입양절차 알아보기

소재지: 제주시 첨단동길 184-4-68 <제주 동물보호센터>: 입양절차 교육영상 시청, 고양이관과 강아지관으로 나뉘 보호 중, 보호 중인 동물의 식별표 게시



제주 동물 보호센터 방문 소감



♣ 하원이 생각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학교를 마치고마자 정해진 방문 시간에 맞춰야만 입장이 가능한 '제주동물보호센터'로 서둘러 향했다. 제주동물보호센터는 산속으로 비포장길을 한참 지나서야 나타났다. 먼저

신발 소독을 하고 방문절차를 마친 후 가장 먼저 입양 절차에 대한 교육영상을 시청하고서야 유기동물이 있는 방을 둘러볼 수 있었다.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강아지들은 더 이상 인간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 유기견 보호소의 환경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았다. 이상한 냄새, 철창 안에 갇혀있는 수많은 강아지들, 나는 유기견 보호소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유기견들이 더는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는 것이 유기견을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보호소의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10일이 지난다고 바로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너무 사나운 개나 아픈 곳이 많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는 개들을 인도적 처리한다고 한다. 하지만 유기견 보호소에 입소된 강아지들은 인간들이 한 일들로 트라우마가 남아 사나운 개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그 개들은 언젠가는 안락사가 될 개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아예 유기견을 만들지 않아야 하고 유기견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보유세를 내서 양육자에게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이 양육자에게도, 일반 시민에게도, 강아지에게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동물보호센터 팀장님의 말씀 중 제주에는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없어 한꺼번에 화장해 모아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한다는 말씀도 들었다. 가족처럼 생각하며 키운 반려동물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을 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줄 수 있고 반려인을 위로하는 시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민준이 생각

제주 동물보호센터에 오기 전에 반려동물, 유기동물, 열악한 동물복지 등 많은 기사와 관련 정보들을 공부하고 왔지만, 그저 인간을 만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짹짹



않도록 유기견을 입양하는 양육인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뛰면서 내가 내민 손 가까이로 모여드는 유기견들의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모두 각자의 방안에 잘 보호 관리되고 있겠지만 어쩐지 여기에 강아지들이 영원히 입양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어디로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다행히도 10일만 지나면 안락사하는 줄 알았지만 센터 팀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너무나 사나운 개나 입양되어도 양육인들과 잘 지낼 수 없는 개들만이 안락사된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 또한 너무 슬펐다. 그래서 유기견이 다시는 나타나지



♣ 유준이, 지상이 생각

유준: 나는 유기견들이 시간이 많이 있어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대회를 참가하면서 안락사라는 말도 처음 들었고 모르는 걸 많이 알게 됐다. 이렇게 유기견 보호센터도 갔다 오니 강아지 고양이 귀엽기만 한데 저런 작은 철창 안에만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아픈 강아지도 있었고 혹시라도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당하게 될까봐 가슴이 아프고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색하며 유기동물을 공부할 때 보다 직접 와서 새로운 사실을 더 많이 배우고 느꼈다. 나는 커서 유기견을 데려와 나의 가족처럼 대할 것이다.

지상: 나는 반려동물 보유센터에 다녀온 후 유기동물이 귀여운 느낌보다는 유기동물이 생활하는 환경과 유기동물의 건강 상태가 내 눈이 의심될 정도로 열악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래서 더, 조금이라도 동물복지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나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는 것과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뜻깊은 경험으로 견문을 넓힌 것이 너무 만족스러웠다.

제주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입양절차 알아보기

소재지: 제주시 첨단동길 184-14 <제주 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센터 입양 및 개방 안내

1. 우선 정해진 개방시간 외 출입을 제한
2. 개방시간: 평일 14:00~16:00(토요일 11:00~13:00)
3. 첫 방문 시 입양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당일 입양은 제한
(한번 더 생각하여 선택된 입양 막기 위해)
4. 입양의사가 있다면 동물을 보고 입양설문지를 작성
5. 다음 방문을 예약하여 입양을 진행
6. 입양일에 준비물을 준비(신분증, 입양설문지, 목줄 또는 가슴줄(이동장) 등)
7. 주의사항
 - 적절하지 않은 이동장의 경우 입양이 거부될 수 있음
 - 입양동물 입양 시 트럭집칸 등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이동장 준비
 - 보호시설 입장 시 반려동물 입장은 금지

♣ 반려동물 문화교실

1.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14:00~15:00
2. 전화(064-710-4067)로 접수하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
3. 교육내용
 - 반려동물(유기, 유실동물) 입양준비
 - 올바른 반려동물 행동요령 배우기
 - 반려동물 펫티켓, 동물보호법 등 사전 홈페이지 공지

♣ 기르던 동물을 잃어버리셨거나 입양을 원하신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i.go.kr)을 확인하세요.

- 시, 군, 구청에서는 유기동물을 구조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함.
- 공고 후에는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은 입양될 수 있음.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함께 만들어 가요



팩트연구원은 제주의 유기견이 전국의 최대 규모라는 뉴스 기사를 접하고 관심을 기울여 우리 지역의 반려동물 실태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다.

실제로 알아본 제주의 유기견 상황은 현재까지 조사,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많은 것은 사실이다. 또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입양률은 낮고 안락사 비율은 높은 것으로 자료에서 보았다, 이것이 제주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적고 책임감이 없어서 발생한 현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제주 동물보호센터의 송경옥 팀장님의 인터뷰에서 들었듯이, 제주에 유기견이 많다는 사실은 실제 반려인들의 책임 의식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제주의 자연적 환경과 전원적 반려 행태에서 비롯된 들개, 마당 개가 많은 이유가 더 컸고 그런 유기견을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으로 구조하여 유기보호소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검색한 자료의 절차상으로 입양되지 않고 15일 이상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하지 않고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제주 동물보호센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보호시설의 거취기간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설명해 주셨다. 유기동물의 야생성과 사회성의 여부, 건강회복 가능성 등 다양한 방법에서 충분히 논의된 후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여 주셨다.

이번 팩트체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제주의 유기동물보호센터는 겨우 한 곳뿐이어서 반려동물의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한 적극적 구조활동 외에도 유기견을 줄이기 위해 중성화 수술이나 타 지역으로의 입양활성화 캠페인, 유기견 입양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동물권행동단체 카라의 「대한민국 동물복지 사업과 예산 현주소」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총예산은 전년보다 5.6% 늘어난 18조 3000억원이고 그중에 동물복지 예산은 불과 120억원 정도로 0.1%에 해당한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큰 포부를 안고 2020년에 발표한 <2020~2024년 5개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총 6대 분야 26개 세부 과제로 구성하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고작 120억원으로 동물복지에 변화한 것이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부족한 재정을 국민의 세금으로 채우면 동물복지가 나아질까?

종합계획 발표 후 3년이 지나 발표한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인들의 의식조사를 보면 반려동물 세금에 찬반론이 아직도 계속 논의되고 우리나라도 아직은 도입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 사이에 세금의 시용처가 뚜렷하지 않고 신뢰가 없는 이유가 아닐지 우리 동네 반려인의 설문 조사에서도 알게 된다. 팩트연구원이 팩트체크를 해오면서 정리된 생각은 반려동물 세금으로 반려양육자의 교육과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을 통해 유기견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부과에 크게 반대하는 반려인들 목소리의 이면에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는 하지만 적정 금액의 세금으로 더 많은 혜택과 필요성을 홍보하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문제를 줄여갈 수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세금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그 세금의 투명한 사용처를 밝히고 국민은 지속적으로 세금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우리는 세금으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려진다.

1809년에 처음 반려동물 세금을 도입한 독일의 경우 분양하는 펫숍은 사라지고 유기견을 입양하는 선진 동물복지국가로서 유기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1500만 반려인시대를 맞은 우리나라의 동물 복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개 식용 국가’, ‘유기견을 해외로 수출하는 국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기동물 보호 센터의 시설이 부족해 구조 현장에서 모든 유기동물을 구조할 수 없고 보호된 유기동물조차도 인도적 처리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동물 학대와 유기 없는 국가, 동물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비인간동물과 인간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국가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미디어 콘텐츠

“동물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길,
당신은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콘텐츠 소개

📍 기획의도

팩트연구원은 1500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인구밀도 대비 제주의 유기견이 전국에서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입양률은 적고 안락사율이 높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고 이를 위한 진실을 팩트체크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고자 했다. 지역의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려동물의 학대와 유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국가의 운영재원이 부족하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한 충분한 자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잘 관리하면 동물과 인간이 이 세상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번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다.

📍 상세설명

이제 반려동물은 인간과 따로 떼어 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공존하는 동행자이며 가족이다. 제주의 유기견 실태를 팩트체크하고 우리가 나아갈 좋은 세상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팩트체크하며 올바른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때로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매번 팩트체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팩트체크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 서로서 손잡고 해결해 나가면 진실이 바로 선 세상!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 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담는다.
팩트체크의 중요성, 그리고 인간과 동물과 제주의 자연이 친화하는 이미지를 길 찾기도
도로를 통해 구현해 보았다. 우리 삶의 여정에 항상 팩트체크와 함께 한다!
캔바와 프로크리에이트 등을 활용해 제작하였습니다.



홍보 및 캠페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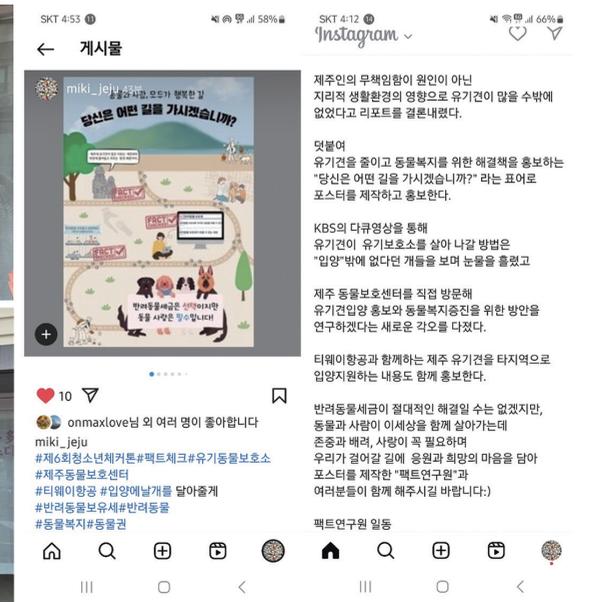
1. 홍보활동의 목표

- 1) 제주 유기견이 많이 생긴 이유는 제주의 마당개 등의 양육방식과 지리적 환경적 원인이 크다는 진실을 알린다.
- 2) 동물복지의 중요성 홍보
- 3) 반려동물세금의 필요성 홍보

2. 홍보 방법

- 1)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이를 SNS에 공유하여 널리 알린다.
- 2)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제작한 포스터를 게시하고 궁금한 사항과 포스터 제작의 취지와 의미 등을 팀원들이 직접 설명한다.
- 3) 반려동물은 사지 않고 유기견을 입양하자는 취지도 전달하고 제주 동물보호 센터에 대한 정보도 알려준다.

3. 홍보활동 사진





참여소감

이번 제6회 청소년 체커톤 대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많지만,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박지상

“이번 기회로 팩트체크를 직접 해보니 내가 알고 있던 팩트체크와는 많이 달랐다. 내가 아는 자료를 몇 가지 찾아 사실 정보를 알아내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 해보니 문제를 파악해 자료를 찾고 그 결과를 다시 검증하고, 주제에 맞는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인터뷰와 주제와 관련된 실험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팩트체크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 게다가 팩트체크를 하며 내가 몰랐던 지식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김유준

“우리나라에서 유기견이 제주도에 제일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사를 읽다 보면 이것이 제주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돌보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정말 슬펐다. 그리고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것이 동물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자료를 조사하고 팩트체크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아직 준비 중이다. 유기견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준

“이번 팩트체크를 하면서 나는 세금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 국민들이 내는 돈, 이 돈은 우리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중요한 일에 사용되는 돈이 세금이다. 과연 반려동물보유세가 동물 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찾아보고, 물어보고, 동물보호소에 방문하였다. 내가 찾은 결론은 제주인의 무책임이 제주 유기견의 숫자를 늘이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기견을 줄이고 동물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면 반려동물보유세가 도입되어서 제주뿐 아니라 전국의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감이 강화되었으면 한다.

또 보유세를 통해 동물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세상은 더욱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잘 찾아지지 않았을 때는 어렵기도 했지만 그 자료를 찾았을 때 가장 뿌듯하고 만족했다. 또, 보호소에 가서 유기된 강아지들을 직접 보고 온 경험이 유기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고, 팩트체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변하원

요즘은 방송에서도 추리를 하며 사건을 해결하는 시리즈들이 많다, 나도 즐겨본다. 이번 청소년 체커톤 대회가 그랬다,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수사관의 마음으로 파헤치고 멈추지 않고 계속 생각해야 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찾아내야 했다, 쉽없이 생각만 하니까 아이디어가 더 안 떠오르고 한동안 제자리걸음만 할 때도 있었고 팀원들과 생각이 엇갈려 힘들 때도 많았다. 하지만 한 단계씩 풀어나갈 때마다 해냈다는 보람이 있었고 아이디어를 쥐어 짜내야 할 땐 정말 머리가 아프기도 했지만 나의 생각의 크기가 커지고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팩트연구원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만든 구글슬라이드가 무려 130장이다. 정말이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다는 게 너무 대견하다. 아마 내년 제7회 청소년 체커톤 대회에 중학교 친구들을 모아 다시 도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